

# “댐 바닥 ‘죽은 물’ 까지 끌어다 쓴다”

광주·전남 1년 넘긴 최악 가뭄  
환경부, ‘극한상황’ 대책 추진  
영산강 보 활용도 제고 주문도

광주·전남지역에 최악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추진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67개 시군 가운데 45곳이 생활·공업용수 가뭄 단계가 정상이 아니다. 가뭄단계는 정

상부터 심각까지 5단계인데 심각한 시군은 없고 심각 바로 아래 경계인 15곳은 모두 호남이다. 지난달 영산·섬진강 유역 강수량은 19mm, 이달은 27일까지 41mm로 평년 강수량의 52%와 69%에 그쳤다. 이달 22-26일 영산·섬진강 유역에 30mm 정도 비가 왔으나 해갈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완도군과 진도군 섬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 ‘6일 단수, 2일 급수’와 같은 제한급수

가 이뤄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물 절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전남권 주요 5개 댐 중 주암·수어·평림·동복댐은 연말까지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저수위는 댐에서 정상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한 수위 하한선이다. 섬진강댐은 6월 초 저수위 도달이 예상되나 내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이 시행되면 저수위 도달 시점이 흉수기 시작 이후인 7월 중순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예상은 앞으로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가뭄’이 이어질 경우를 가정한 산출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예상”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올 여름까지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지속하면 댐 저수위 도달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으므로 저수위 아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두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댐 바닥의 물로 오염이 심해 ‘죽은 물’로 불리는 사수(死水)를 취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작년 7월부터 하천유지·농업용수 공급량 선제 감축을 통한 물 비축 등 가뭄대책을 시행해 광주·전남 생활용수 124일치에 해당하는 1억 1,900만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 사용량을 줄이면 광역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로 지난달 전남 12개 지자체에서 생활용수 사용량을 8.2% 줄였고,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 정비시기를 상반기에 몰아 농업용수 사용량을 지난달까지 33만톤 줄이고 6월까지 322만톤 절감할 예정이다. 완도군 보길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만들어 작년 12월 26일부터 조기 운영해 약 4만톤의 물을 보길도와 노화도 유일 상수원인 보길저수지에 보충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으로 완도군 소안도에 2,520t의 물을 공급했다. 전남권 가뭄이 이어지면서 영산강 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동복댐 물이 급감하면서 이달 2일부터 영산강 상류 하천수가 광주시 용연정수장에 하루 3만씩 공급되고 있다. 5월부터는 공급량이 5만톤으로 늘어난다. 5만이면 광주시 생활용수 사용량(45만)의 9분의 1이다. 전남권에서는 그간 섬진강에서만 생활용수를 끌어다 썼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더 필요해지는 4월부터 보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용=강병은 기자

## 전남 노후 관광지 4곳 재생사업 ‘새단장’

장흥 우산도·곡성 도림사 등  
콘텐츠·시설보강... 투자유치

전남도는 29일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장흥 정남진 우산도, 무안 회산백련지, 화순온천, 곡성 도림사 관광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개발된 지 10년 이상 된 관광지의 시설과 MZ세대에게 외면받는 콘텐츠 등을 보강해 관광객에게 안전과 볼거리를 제공, 찾고 싶은 관광지로 새단장 한다. 장흥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는 2,700억원의 복합리조트 민간투자 유치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정남진 전망대 콘텐츠 보강, 주변 공원 시설물 정비 및 안내판 교체, 감성방앗간 예술전시

시설 증축 등을 추진한다. 무안 회산백련지는 기존 노후 카라반을 교체·정비하고, 최근 가족 관광객이 선호하는 방갈로를 신규 설치한다. 동양 최대 백련 서식지를 활용해 체험·숙박 등을 즐기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계획이다. 화순온천은 관광객에게 쾌적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가도 등 교체 및 편의시설 정비, 족구장 설치, 쉼터 등을 조성한다. 또 민자 투자유치를 통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SF로봇수련센터 등 콘텐츠도 보강할 계획이다. 곡성 도림사는 광주와 인접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도림사계곡, 섬진강 기차마을 등과 연계해 가족단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 노후 캠핑장, 카라

반, 야외비비큐장 등을 정비해 생태·체험 콘텐츠를 갖춘 관광지로 재생시킬 계획이다. 전남에는 관광단지 6곳, 관광지 27곳, 관광특구 2곳 등 전체 35곳 중 20년 이상 된 관광지가 18곳에 이른다. 이에 전남도는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비를 지난해 37억원보다 62% 많은 60억원을 투입한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섬·해양·갯벌 등 관광자원과 먹거리, 즐길거리 등 매력 넘치는 관광콘텐츠를 상호 연계하는 고급 숙박시설을 유치해 최고의 체류형 관광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관광지를 활용해 다시 찾을 소소하고 재밌는 콘텐츠가 넘치도록 노후 관광지 재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구례군 지리산정원에서 7개 단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2050 탄소중립·명품 숲 조성 박차

지리산정원서 나무심기 행사  
7개 기관 기후변화 공동대응

전남도는 29일 구례 지리산정원 일원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황금영 (사)숲속의 전남 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 관계관, 임업인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7개 기관단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 목표로 정하고 매년 1,00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어 2050년까지 총 5억 그루 나무 심기 달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7개 기관단체는 나무 심기와 숲 돌보미 활동에 참여하고, 전남도는 협약이 성과를 내도록 행정·기술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참석자 500여명이 지리산 자생수종인 산딸나무, 배롱나무, 고로쇠나무 등 2,000그루를 식재했다. 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돈나무, 미니 백일홍, 대추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비롯한 꽃과 나무 1,500그루를 분양해 나눔을 통한 탄

소중립을 실천했다. 전남도는 2021년 3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4대 핵심전략인 청정 에너지, 청정산업, 청정생활, 청정산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9,240만톤을 목표 산업 부문, 전환(에너지) 부문, 탄소흡수원 부문 등 7개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김지사는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숲이 돼 탄소를 흡수하고 건강한 미래와 청정 전남을 만든다”며 “도민이 숲을 더욱 가까이 즐기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숲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Jeolla Namdo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도 “친환경직불금 등 신청하세요”**

내달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는 29일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5~10월 이행 점검 기간을 거쳐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지급 단계는 인증 단계와 재배 유형에 따라 논은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6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65만원, 무농약 5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무농약 벼는 지난해까지 4년 차 1회만 지원했으나, 유기 전환 시 무농약 벼의 재진입과 유기농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 전환 필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유기 전환 필지는 무농약에서 유기로 인증단계로 상향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전환 기간 유기재배 방법으로 재배하는 필지를 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 받은 농업인 등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농가가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